

광주FC 클래식 잔류 기적 꿈꾼다

임선영 합류 중원 강화 공격력·분위기 상승세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서 상주와 벼랑끝승부



K리그 클래식 잔류 기적이 도전하는 광주FC가 벼랑끝 승부를 펼친다. 22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상주 상무와의 하위스플릿 2번째 경기다. 광주는 지난 15일 전남 드래곤즈전에서 4-2로 승리, 10위 전남, 11위 인천과 승점을 7점차로 좁히고 다득점에서 인천을 앞서 승점 동률시 상위여에 랭크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1일 포항, 대구와 맞대결을 펼치는

전남, 인천이 패하고 광주가 상주전에서 승리하면 승점차는 '4'로 줄어든다. 잔여 3경기에서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 전남과 인천이 승리하고 광주가 상주에 패하면 승점이 10점차로 벌어지게 돼 잔여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광주의 챌린지 강등이 확정된다. 자력 잔류가 불가능한 광주는 반드시 상주전에서 승리해 승점을 추가하고 전남과 인천이 패하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광주는 기적을 꿈꾸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분위기와 공격력 두가지 이유에서다. 광주는 지난 2014시즌 기적과 같은 승격을 이뤄냈다. 시즌 내내 하위권에 처져 있었지만 4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 승격까지 끝냈다. 당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적을 일궈낸 임선영(당시 주장), 안영규(15년), 정준연, 제종현이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팀에 합류하면서 전군 만마를 얻었다. 누구보다 위기 대처능력과 팀에 대한 애착이 큰 선수들의 복귀가 흐트러져 있던 전열을 다듬고 팀을 일으켜 세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광주는 임선영이 그라운드에서

북귀한 9월 24일 이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형들이 복귀하자 동생들도 힘을 내고 있다. 승격 당시 임선영과 함께 뛰었던 송승민(현 주장)과 김영빈이 그 뒤를 잇고, 망형 이종민이 선두에 서 있다. 광주는 올 시즌 내내 득점력 빈곤에 시달렸다. 경기당 평균 득점이 1을 넘지 못했다.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라는 말로 위안을 삼았으나, 결과로 경쟁해야 하는 것이 프로무대의 료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광주는 최근 4경기에서 7골을 몰아쳤다. 집중력과 골 결정력이 수직상승했다. 그 중심에는 완델손이 있다. 완델손은 제주-울산-전남전까지 3경기 5골

을 기록했다. 모두 교체로 투입돼 이론성과다. 지난 라운드 기록한 헤트트릭은 광주의 창단 첫 기록이기도 하다. 중원이 강화되면서 완델손에게 기회가 생기고 있다. 먼저 임선영과 본즈, 김민혁이 미드필드에서 유기적인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고, 이종민과 박동진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한다. 또 나상호와 송승민의 헌신적인 움직임과 김학범 감독의 전술전략이 적절하게 어우러지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는 김학범 감독 부임 후 1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다. 경쟁을 하기에는 분위기가 다소 늦었다. 하지만 늦은 만큼 추격의 의지가 강한 광주다. /최진화 기자

“KS 처럼” KIA 생체리듬 맞추기 올인

홍백전 헛터·양현종 등판 KS 1·2차전 미리보기 연습경기·훈련 일정 25일 1차전 맞춰 철저 대비

18일 오후 6시30분. KIA 타이거즈의 홍백전이 시작됐다. 백팀의 라인업은 이명기(우익수)-김주찬(1루수)-비나디나(중견수)-최형우(좌익수)-나지완(지명타자)-안치홍(2루수)-이범호(3루수)-김민식(포수)-최정민(유격수). 김선빈만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결장했을 뿐 1군 주전선수들이 포지션을 이뤘다. 백팀을 상대하는 홍팀 선발은 헛터. 미리보는 한국시리즈 1차전 라인업이었다. KIA 타이거즈가 25일부터 시작되는 한국시리즈 일정에 모든 '생체리듬'을 맞추고 있다. 훈련일정을 2일-3일-2일로 맞춰 위밍업을 해왔던 KIA는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면서 상대팀이 두산 또는 NC로 압축되자 본격 전술 훈련을 시작했다. 지난 14일 첫번째 홍백전에서 1이닝만 소화했던 헛터도 이날은 4이닝을 던지며 일주일후로 다가온 한국시리즈

1차전을 준비했다. 19일 진행된 홍백전 선발은 양현종이 나섰다. 18,19일 야간 홍백전은 철저히 한 국시리즈 1,2차전에 맞춰 진행됐다. KBO 심판을 초청했고, 선수 등장 음악과 안내방송, 의료진 더그아웃 대기 등 관중을 제외한 모든 상황을 똑같이 했다. 20일은 이동일에 맞춰 하루 휴식을 취한 뒤 21일은 KS 3차전 잠실 또는 마산에서의 낮경기 일정에 맞춰 오후 2시 홍백전을 갖는다. 한국시리즈와 똑같은 패턴을 일찌감치 몸에 익혀 생체리듬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18일 홍백전에서 헛터는 5이닝을 계획하고 마운드에 올랐다. 결과는 4이닝7피안타5탈삼진 2실점. KIA 주전타자들을 상대로 4회까지 5개의 안타를 허용했던 헛터는 5회 수비 실책 등으로 인해 2안타를 허용한 뒤 투구수 82개에 이르는 김운동과 교

체했다. 직구 최고구속은 147km를 기록했고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고루 던지며 구위를 점검했다. 헛터는 지난 14일 첫 연습경기에서 1이닝 1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김운동은 2이닝동안 6명의 타자를 상대하며 2피안타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고 8회말 마운드에 오른 임창용은 1이닝동안 4명의 타자를 상대하는 동안 1피안타무실점을 기록했다. 최병연이 안타를 내줬을 뿐 류승현과 한승택, 최정민을 상대로 땅볼을 유도, 아웃카운트를 잡아냈다. 백팀 선발타자들은 올해 '다승왕' 헛터를 상대했던 만큼 화력을 뽐내지는 못했다. 이명기와 김주찬이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5-6회 이후 주전 선수들은 대부분 대주자 또는 대수비로 교체됐다. 홈팀 4번타자로 나선 김주형이 이날 3점홈런을 포함해 4안타 5타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경기는 백업선수들이 주축이 된 홍팀이 9-3으로 이겼다. /최진화 기자

무등중 추계중학교 야구대회 우승... MVP 김대홍·우수투수상 김녹원

무등중학교가 17-19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2017추계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우승팀인 동성중 등 4개 팀이 나서 리그전으로 진행됐다. 무등중은 대회 첫날 총장중을 3-2로 이긴 뒤 이틀날 동성중을 5-7로 이겨 2승을 차지했다. 19일 진흥중과 경기에서 6-4로 승리한 무등중은 3승으로 대회 정상에 올랐다. 준우승은 동성중이 차지했다. 최우수선수상은 무등중 김대홍이 우수투수상은 무등중 김녹원, 타격상은 진흥중 송태환(11타수7안타0.636)이 차지했다.



무등중학교가 19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2017 추계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진흥중 고은수는 최다투수상(5개)과 최다타점상(4타점)을 기록했으며 동성중 김성민이 감투상, 무등중 최우혁이 미끼상을 받았다. 감독상은 무등중 김성일 감독에게

주어졌다. 한편, 2017 추계 초등학교 야구대회는 오는 11월 13일부터 분량리투구장에서 5일간 리그전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

김국영 “일본 선수들 기록은 자극제”

22일 전국체전 100m 출전 “한국신기록 목표”

특별한 2017년을 보낸 김국영(26·광주시청)이 전국체전에서 화려한 시즌마무리를 꿈꾼다. 2018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을 위한 실험도 한다. '아시안게임 남자 100m 메달 경쟁자' 일본 선수들의 역주가 좋은 자극제가 됐다. 김국영은 19일 “일본 선수들의 기체가 정말 무섭다”고 운을 뗐 후 “런던 세계육상선수권이 끝난 뒤, 전국체전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일본 선수들의 기

록 달성 소식을 들었는데 좋은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국영은 6월 27일 강원도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7 코리아오픈 국제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 결승전에서 10초07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온기록(10초12)을 여유 있게 통과한 김국영은 8월 열린 세계선수권 예선에서 10초24로 3위를 차지하며 준결승에 올랐다. 세계육상선수권 단거리에서 한국

선수가 준결승에 오른 건, 김국영이 최초다. 하지만 '9초대 진입'을 가슴에 품은 김국영은 만족하지 않았다. 22일 추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남자 100m 예선, 결승에서 운까지 따르다면 새로운 한국기록이 탄생할 수도 있다. 김국영은 “늘 (한국기록) 10초07을 넘어서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 당일 변수가 있겠지만 하늘이 돕는다면 한국신기록에도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9일 제주 서귀포시 클럽 나인브릿지에서 열린 PGA투어 더 CJ 컵 @ 나인브릿지 1라운드 경기에서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4번홀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환·스크릭스 마산서도 폭발할까 PO 1,2차전 '불방망이' 자존심 대결

힘 있는 4번타자 김재환(29·두산 베어스)과 재비어 스크릭스(30·NC 다이노스)가 플레이오프(PO)를 난타전으로 이끌고 있다. 18일과 19일 잠실에서 열린 PO 1, 2차전에서 두산과 NC는 총 42점을 뽑았다. 두산이 원투펀치 더스틴 니퍼트와 장원준을 내세우고, NC가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를 경험한 제프 맨섭을 불펜으로 돌리는 강수를 뒤로 터지는 타선을 막을 수 없었다. 타선의 핵은 4번 김재환과 스크릭스였다. 둘은 나란히 홈런 2개, 타점 7개를 올렸다. 홈런과 타점 공동 1위다. 타율은 스크릭스가 조금 앞선다. 스크릭스는 11타수 5안타(0.455), 김재환은 7타수 3안타(0.429)를 쳤다. 양 팀의 4번타자 모두 절정의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다. 김재환은 PO 2차전에서 3점포 2개를 쏘아 올렸고, 희생플라이로 타점을 보냈다. 한 경기 7타점은 역대 포스트시즌 최다 타점 타이다. 스크릭스는 PO 1차전에서 역전 만루포를 치더니, 2차전에서도 솔로 아치를 그려며 올해 잠실구장에서 20홈런을 친 '잠실 홈런왕' 김재환과 팽팽한 승부를 펼쳤다. 이제 무대를 마산으로 옮긴다. 마산구장은 홈플레이트에서 외야 펜스 거리가 좌우 97m, 중앙 116m다. 거포들은 좌우 100m, 중앙 125m의 잠실구장보다 마산구장을 선호한다. '마산 홈런왕'은 스크릭스다. 스크릭스는 올해 마산구장에서 18홈런을 쳐, 11개 아치를 그린 2위 나성범(NC)을 크게 앞섰다. 마산구장 정규시즌 타율은 0.310이다. 한국 무대 포스트시즌 첫 홈런도 마산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준PO 3차전에서 쳤다. 김재환도 올 시즌 마산구장 8경기에서 타율 0.313, 2홈런, 5타점을 올렸다. 지난해 마산에서 열린 NC와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도 솔로 아치를 그렸다. NC 불펜은 지친 기색이 역력하고, 두산마운드도 흔들리고 있다. 김재환과 스크릭스의 자존심 싸움이 PO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연합뉴스

토머스, CJ컵서 '넘버원' 과시 이글·버디쇼 9언더 단독선두

지난달 막을 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2016-2017 시즌 최고 선수는 저스틴 토머스(미국)였다. 상금왕, 다승왕, 올해의 선수상을 휩쓸었다. 시즌 동안 거둔 5번의 우승에는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도 포함됐다. 1,000만 달러의 보너스가 걸린 페덱 스킵도 손에 넣었다. 토머스는 19일 제주 서귀포시 나인브릿지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PGA투어 더 CJ컵@나인브릿지(이와 CJ컵) 1라운드에서 '넘버원'다운 기량을 화려하게 펼쳐 보였다. 이글 2개와 버디 7개를 잡아내며 9언더파 63타를 쳐 첫 PGA투어 대회를 개최한 나인브릿지 코스를 간단하게 요리했다. 10번홀(파4)에서 경기를 시작한 토머스는 러프를 오가며 보기를 적어내 불안하게 출발했다. 하지만 '넘버원'의 위력은 금세 드러났다. 600야드에 2야드 모자란 598야드로 세팅된 12번홀(파5)에서 두 번 만에 그린에 볼을 올린 토머스는 4m 이글 퍼트를 집어넣었다. 14번홀(파4·353야드)에서는 드라이버 티샷 한 번으로 또 한 번 이글 찬스를 만들었다. 8m 이글 퍼트가 홀을 살짝 비껴가자 그린 주변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15번홀(파4)에서는 두 번째 샷이 그린을 빗나갔다. 그러나 10m 거리 러프에서 띄워서 친 세 번째 샷이 홀에 빨려 들어가자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300여 명의 갤러리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16번홀(파4)에서는 두 번째 샷이 그린에 살짝 못 미쳤으나 웨지로 굴린 볼이 컵 속으로 사라졌다. 17번 홀(파3)마저 버디로 장식하며 4개 홀 연속 버디 쇼를 펼친 토머스는 18번 홀(파5)에서 화려한 장타를 앞세운 이글로 또 한 번 갤러리의 환호를 끌어냈다. 전날 9개홀을 29타로 마무리 짓고 후반으로 넘어온 토머스는 3번홀(파5)에서 두 번째 샷이 강하게 맞는 바람에 그린을 넘어갔지만 3m 버디 퍼트를 놓치지 않았다. 6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한 토머스는 7번홀(파3)에서 그린을 놓친 데 이어 2m 파퍼트를 넣지 못해 이날 두 번째 보기를 적어냈지만, 마지막 9번홀(파5)에서 4m 버디로 1라운드를 기분 좋게 마쳤다. 채드 레비(미국) 등 5명이 포진한 공동 2위에 3타 앞선 단독선두다. /연합뉴스

박성현 LPGA 신인왕 확정... 한국선수중 11번째

'슈퍼루키' 박성현(24)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이번 시즌 신인왕 수상자로 확정됐다. LPGA 투어는 18일(현지시간) “이번 시즌 5번의 투어 대회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박성현이 산술적으로 올해의 신인왕 수상 선수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성현은 현재 신인왕 포인트 1천 413점으로, 2위 미국 예인절 인(615점)과의 차이가 800점 가까이 난다. 인기 남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다고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점수 차다. LPGA는 역대 신인왕 가운데 2위와의 점수 차가 역대 3번째로 많이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현은 한국 선수 가운데 LPGA 신인왕을 받은 11번째 선수가 됐다. 지금까지 1998년 박세리, 1999년 김미현, 2001년 한희원, 2004년 안시현, 2006년 이선화, 2009년 신지애, 2011년 서희경, 2012년 유소연, 2015년 김세영, 2016년 전인지가 LPGA 신인왕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